

“억울한 눈물 없어야...” 눈물바다 된 가슴기 피해자 면담장

문제인 대통령, 피해자 위로 ... “정부 대표해 깊이 사과”

“공영방송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져” 국무회의 발언 “언론자유 회복 노력해달라”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임명장

문제인 대통령은 8일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가슴기 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뒤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14살 임성준 군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자책감·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슴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구제 체계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

눈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다독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각 참석자들의 사연에 대해서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참석자들의 사연에 김 장관이 끝내 눈물을 보였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슴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통에 의지해 살고 있는 임성준군(14)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야구를 좋아하는 임군에게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피규어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제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신인 방통통신위원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고자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변부담한 방송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따뜻한 위로 문제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울먹이는 피해자 조순미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재수사, 필요성·성과 있을지 검토해 결정”

문무일 검찰총장 간담회 “시국사건 검찰 과오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공개범위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정운회 문건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하명수사’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국정농단 사건은 여러 논의가 있고 범위도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안의 폭발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단 명확한 언급 대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

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 수사에 착수한 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과제”라며 “이런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태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건, 감사원 면세점 선정 의혹 고발 사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등 국정농단 재수사 성격이 짙은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이를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역사상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의 하나로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

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사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높아진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취임 후 첫 월례 간부회의를 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보고는

과감히 생략해주시기 바란다”며 보고 최소화 주문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여한 간부회의에서 “일선 청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사건 보고나 수사와 관련 없는 행사 정보보고가 많이 올라온다”며 “일선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필요한 보고만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만기 진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살펴서 조직 운영을 지양하고 각 검찰청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급 이하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공무원의 업무는 모두 국민을 위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며 “인사에 일희일비 말고 묵묵히 각자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선 부서에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사심의위원회’ 및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 내부 검찰 기록 공개 등 개혁 구상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무안출발 일본여행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 가족·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 출발일 : 8월 5일(토) ~ 10월 9일(월) 까지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레이어

8/11(금) 출발 **※선착순 한정특가**
북큐슈 펜션특가 4일 499,000원부터

8/14(월) 출발, 8/17(목) 출발
북큐슈 실속특가 4일 559,000원부터

항공 4일(매주 월요일, 목요일)
북큐슈 4일 6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야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오사카 4일(단, 한변) 79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렌탈, 전일정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효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4(수)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ALL 포함)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10/9(월) 출발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9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후에, 호이안 3박5일

〈무안출발〉 티웨이항공

9/19(화), 9/22(금) 출발

준특급 499,000원부터 특급 599,000원부터

8/23(수), 26(토), 29(화)

9/1(일), 4(월), 7(목), 10(일), 13(수), 16(토)

10/14(토), 17(화), 20(금), 23(일), 26(목), 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 식사, 차량·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방송

◆ 공통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식사(90/인), 여권, 공항 수속, 개인경비, 선착륙 경비, 메니얼, 상급차(8박준특급 \$120, 특급 \$230)

<항공왕복> 제주도 웰빙 2박3일

349,000원 부터

7/21(금)~8/20(일)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 제등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상보험 : 1억원, 국내상륙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항공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작성 ◆ 예약시 계약서(유상)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륙관, 각각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